



임실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운수과출소 앞에서 교통관리, 지역경찰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월드컵 행사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및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을 실시 예정이다.

김효진 서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경 기자



임실경찰서, 대테러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가져

임실경찰서(서장 김진형)는 21일 폭발물 등 테러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테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요소 및 테러대응 초동조치 체계 점검과 사전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서장 주재로 테러방지법령에 따른 경찰의 역할과 폭발물 테러 등 관련,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현장대응까지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김진형 서장은 “테러 발생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동조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실=김기두 기자

김제 부랑면 이장협의회, 출생아 가정에 선물 전달

김제시 부랑면 이장협의회(회장 노장남)는 지난 18일, 2022년 부랑면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의금과 분유포트 등의 선물을 전달하고 부랑면 면민이 된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했다.

부랑면 행정복지센터와 부랑면 이장협의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랑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랑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을 찾아 축하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랑면 이장협의회 노장남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역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출생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태어난 아이들이 김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강하게 자리주기를 바란다”며 “부랑면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장협의회에서 꾸준히 축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주천면에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비 건립

손중열 시의원 의정활동 빛나… 민간인 희생자 넋 기려

남원시 주천면 내기마을에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남원 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전후 72년만에 세워졌다.

이곳 위령비 건립에는 지역구 9대 시의원인 손중열(주천·산동·이백)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제2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관련 예산이 속전속결로 편성되는 등 위령비 건립의 전초를 마련했다.

이는 평소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손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과로, 손 의원은 “위령비 건립은 가슴 깊이 아픔을 숨긴 채 살아온 우리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위령비 건립을 통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진실 규명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희생자들의 신원회복과 국가배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음식점 후드 화재 주의하세요”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점 화재의 대부분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 발생하며, 주방 후드 등 환기시설에 쌓인 기름때에 불이 붙거나 식용유가 담긴 냄비가 과열되면서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음식점 후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의 기름찌꺼기 정기적인 청소실시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 설치 △동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배출덕트는 0.5mm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등 불연재료 설치 △열 발생 조리기구부터 0.15m 이내의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 불연 재료로 덮기 등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음식점 운영자는 평소 위험요소를 점검 및 사전 제거함은 물론, 주방 인근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We대한 동행’ 김장김치 만들기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최정선)은 19일 1,2세대 10명, 3세대 10명과 함께 겨울 맞이 김장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세대공감프로젝트 ‘위대한동행’ 6차 프로그램으로 배추절임부터 김치소까지 함께 만들며 1, 2세대의 지혜로움을 배워볼 수 있었다.

또한 김장의 기술과 더불어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무척 압착 시간이었다.

한편,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만든 100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We대한 동행’에 참여한 청소년은 “우리집은 김치를 사먹어서 김장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만든 김장김치가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해 더욱 정성들여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정선 관장은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기성세대와 함께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다양하고 획기적



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대공감프로젝트 ‘We대한 동행’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완주군민(1,2,3세대)은 SNS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검색 또는 063)262-7942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중복 기자

진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에 감사장

진안경찰서 주현오 서장은 지난 1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직원에게 직접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진안군지부 직원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농협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목적인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으로 당장 3,000만원 추심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상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진안군지부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112신고, 신속히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했다.

주현오 서장은 “금융기관과 경찰서가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경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경찰서,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보호 활동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고장을 관통로 일대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여성계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고창교육지원청·정학사·상당사, 패드를 맨 등 10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유해품목인 술·담배 등이 쉽게 노출되는 편의점, 마트, 식당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품목을 판매하지 않도록 업주에게 신분증 확인 철저와 청소년 보호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품과 전단지를 배부했고,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월곡공원 및 빙집 등을 찾는 우범지역 순찰활동도 병행했다.

고영완 서장은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